신안군, 섬마을 어르신 건강 챙기기 '발로 뛴다'

겨울철 건강 점검 위해 현지 방문…문화 공연·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도
경로당 현대화 리모델링·전 주민 공동 점심 제공 등 복지프로그램 박차

신안군이 경로의 달을 맞아 겨울철 건강에 취약한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 점검을 위해 섬마을 곳곳의 경로당을 찾아 나섰다.

신안군은 인구 3만 8000여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 5000여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가 오래됐다. 인구소멸 위기에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에서도 어르신 복지 정책에 지속해서 힘쓰고 있다.

이들 섬 노인들은 육지의 노인들과는 다르게 여가를 보낼만한 곳이 한정되어 있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노령 인구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섬마을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어르신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간단한 경로잔치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 검진, 문화 공연,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어 어르신이 즐겁게 지내면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도록 노인복지 향상에 신경을 쓰고 있다.

앞서 지난해까지 읍·면 단위로 추진한 행사에는 장소 사정으로 제한된 인원 참석으로 아쉬움이 남았다.

올해는 마을별 경로잔치를 통해 마을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기념품 후원과 공연 후원 등 주민 모두가 역할을 나눠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해 사라져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되새기고, 이웃과 세대 간 화합을 다져가는 새로운 경로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경로당 365일 전 주민 공동 점심 제공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식사도우미 배치로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인 지역 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식기세척기 등을 도입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로당 공동 점심 제공은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지속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해 나가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로당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노인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개선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 현대적인 디자인 도입으로 경로당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다목적 공간 활용으로 어르신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박우량(가운데) 신안군수가 섬 어르신들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겨울철 건강 관리를 당부하고 격려를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경로당 소통행사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수와 직원 관계자들이 방문해 노인들 현실에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토론식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격려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경로의 달 행사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정책을 직접 체험하고 소통하는 기회"라며 "이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대한민국 자생란대전

신안군민체육관서 내달 2~3일

'2024 대한민국자생란대전'이 신안군민체육관에서 11월 2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이번 대전은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희귀 난과 식물을 보호하고 난 문화의 대중화와 자생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2000여점의 다양한 희귀 자생란이 선보인다.

신안군은 우리나라 자생란의 보고로 2013년부터 10회 이상의 정기 새우란 전시를 이어왔다.

군은 2014년부터 대한민국자생란협회와 협약을 통해 멸종위기 자생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대전에서는 국민참여상과 난 경매, 난 클리닉 등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청소년이 만들고 참여한 '서남권청소년 축제' 대성황

목포시 주최, 1000여명 참여
경연·체험 등 문화행사 선보여

'청소년, 지금 ON-AIR(온에어)'를 주제로 열린 제20회 서남권청소년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목포시가 주최하고, 서남권청소년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지난 26일 목포로데오광장 일대에서 개최됐다. 1000여 명에 이르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시민 등이 함께했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참석자와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들이 펼쳐져 주목을 받았다.

참석자들과 청소년이 레드카펫으로 함께 입장하며 장미꽃을 선물하는 이벤트가 펼쳐졌으며, 옛 교복을 입은 참석자들이 종이비행기를 청소년들에게 나눠준 후 청소년의 미래, 꿈, 희망을 종이비행기와 함께 날리며 함성을 지르는 행사가 진행됐다. 이는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멋진 장면을 만들어내며 청소년들을 위한 창의적이고 건강한 문화행사가 됐다.

댄스와 보컬, 밴드 등 총 19개 팀이 참가한 경연프로그램도 인기였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는 물론 경연을 보는 관람객들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했다.

참가자 중 댄스팀 1위 더탑, 2위 루나틱, 3위 아이리스, 4위 에코나인, 5위 시나브로(11기), 보컬은 1위 힐러콰이어, 2위 꿈꾸는 합창단, 3위 최고운, 4위 유일한 밴드, 5위 시나브로(13기), 밴드 1위 어비스, 2위 더블레싱스트링 오케스트라, 3위 시나브로(12기), 4위 목포공고 밴드팀(1팀), 5위 목포공고 밴드팀(2팀)이 분야별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머지 4개팀도 각각 참가상을 수상했다.

40개의 체험부스인 청볍마당에서도 각각의 테마에 맞는 체험행사들로 참여자들의 줄이 이어졌으며,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된 드림워크챌린지 in 로데오, 레트로 Go Back(고백), 스탬프투어, 목포원도심 상인회가 쏜다! 에서도 참여자들에게 이색적인 추억을 선사했다.

박홍률(왼쪽) 목포시장이 '제20회 서남권청소년 축제' 개막식에서 청소년들과 입장하며 장미꽃을 선물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박홍률 목포시장은 "항상 끼와 열정이 넘쳐 실패해도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패기를 갖고 있는, 인생 중 가장 생명력 넘치고 아름답고 눈부신 시기가 청소년이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가 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영암 덕진운암리 녹차밭에서본 월출산.

전국 산악인들 영암 월출산에 모인다

영암군, 내달 1~3일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 개최
3일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500여명 참여 예정

영암군이 개최하는 '2024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 기간에 전국 산악인들의 축제가 열린다.

영암군과 대한산악연맹은 11월 3일 영암 월출산 일대에서 '제56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를 개최한다.

전문등산 동호인 5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등산대회는 우수 산악인 발굴,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산악문화 보급을 위해 이어지고 있다.

사전 모집에 신청한 남녀 고등·대학·일반·장년부 8개부문 참가자들은 전날 월출산에 집결해 야영하고 3일부터 본격 대회에 돌입한다.

(사)대한산악연맹은 ▲운행능력 ▲산악독도 ▲등산상식(이론) ▲장비점검 ▲응급처치 ▲암벽경기 등 등산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대회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시상은 '종합' '부문별'로 나눠 3위까지 시상하고 종합 1위에는 대통령상, 부문별 1위에는 문체부장관상을 수여한다. 지도자상, 모범상, 장려상도 따로 마련돼 있다.

11월 2일 '영호남 산악인 친선등반대회와 전남산악연맹 회장기 생활체육 등산대회'도 열린다.

영호남 산악인들은 월출산을 등반하며 친선을 도모하고, 화합과 협력을 다짐할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전국에서 영암 월출산을 찾은 전문등산 동호인들을 환영한다"며 "월출산국립공원의 수려한 풍광과 청정 생태 속에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11월 1~3일 영암읍 영암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월출산, 달빛 넘나들이'를 주제로 '2024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를 개최한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해남군, 저탄소축산물 인증 품목확대…축산 경쟁력 강화

돼지·젖소 등 인증농가 7곳으로 늘어

해남군이 올해 상반기 2개 축산농가가 저탄소축산물 인증을 받아 총 7개소로 인증농가가 늘어났다.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에 인증받은 농가는 돼지사육 1농가와 젖소 1농가로, 기존 한우 농가에 이어 품목을 확대하며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유기·무항생제 등을 포함한 정부 인증을 받은 한우농가 중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우(거세우)는 출하실적이 20두 이상 또는 사육두수 100두 이상, 돼지는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 1800kg 이상 또는 신청 당시 모돈 사육두수 100두 이상, 젖소는 우유 생산량 300t 이상 또는 신청 당시 경산우 사육두수 40두 이상인 농가만 참여할 수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관내 5개 한우 농장이 저탄소축산물 인증을 획득한 가운데 이번 2개소 저탄소 축산물 인증까지 더해 지속가능한 축산산업의 선두주자로 인정받게 됐다.

해남군은 하반기에는 한우 5농가, 젖소 1농가 신청해 축산품질평가원에서 현재 심사 중이다. 또 소비자들의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와 판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모델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해 인증 품목 확대, 유통 연계 지원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호남 다인들 교류…남도다례문화 한마당 성황

목포서 다채로운 행사

2024 영·호남 다인들의 교류 및 남도다례문화 한마당 행사가 목포 달맞이 공원에서 개최됐다.

남도다례문화원은 지난 1995년 이 지역 차인들이 모여 차인회를 조직해 매월 정기적인 모임체로 출발한 이 단체는 봄에 전 회원이 참여해 채다행사를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영·호남 다인들의 교류 및 차문화 한마당'을 개최하면서 우리의 전통 다례문화를 보급시켜 나가고 있으며, 일본 대마도 차(茶)회와 서울 성균다례전수원 등과 교류를 하며 다례문화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다.

강용래 남도다례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고장은 조선 차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동다송 저자 초의 선사께서 탄생하신 지역이며 선사께서 차 문화를 보급하고 꽃피웠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고장이다"며 "훌륭한 문화를 우리가 더욱 아끼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할 것이며 항상 차를 가까이하며 생활하는 다인(茶人)들이야말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계승해 나가는 진정한 문화인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곁에는 영롱한 찻빛이 자리하고 있기에 생활 속에 묻어나는 무한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며 "저희들이 우려낸 각종 우리의 전통차를 마시면서 잠시 우리 차 문화의 우수성을 느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권 할인 받으세요

이용권 30~60% 저렴하게…수험생 이벤트 등 다채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이 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 할인 이벤트를 풍성하게 준비했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해수와 해조류, 머드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16개의 테라피실을 갖춘 국내 유일의 해양 치유 시설이다.

한국관광공사 주관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개관 이후 28일 현재 4만8000여 명이 찾아 대한민국 대표 치유 시설로 자리매김했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기본과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기본 프로그램 이용권(3만6000원) 30장 구매 시 60% 할인한다.

프리미엄 프로그램 이용권(12만5000원)은 10장 구매 시 30%를, 30장 구매 시 50% 할인 이벤트를 한다.

완도해양치유센터 옆에 있는 해양기후치유 및 해양문화치유 프로그램 이용권은 30장 이상 구매 시 50% 깎아준다.

이용권 구매는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만 가능하며 11월 한 달간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11월부터 두 달간 관내 특산품점, 식당,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한 5만 원 이상의 영수증을 완도해양치유센터 방문 시 제출하면 2인 동반 입장까지 30% 할인받을 수 있다.

12월에는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그간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를 주고자 수험생 및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50% 할인 이벤트도 추진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광주일보 72년
SINCE 1952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